2013/3/9
한외사
전재성

삼국지 위서 동이전

지은이: 진수(陳壽)

중국 서진(西晋)의 역사가로서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역사를 다룬 <삼국지(三國志)>를 저술. 233 ~ 297. 촉한(蜀漢)~서진(西晋)

자(字)는 승조(承祚)이며, 촉한(蜀漢, 221~263)의 파서군(巴西郡) 안한(安漢, 지금의 四川省 南充) 출신이다. 촉한(蜀漢)의 장수(將帥) 진식(陳式)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지만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다. 초주(譙周, 201~270)를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배웠으며, 촉한(蜀漢)에서 관각령사(觀閣令史)의 벼슬에 올랐다. 하지만 후주(後主) 유선(劉禪, 재위 223~263) 시기에 권세를 누리던 환관(宦官) 황호(黃皓)에게 거스르다 쫓겨났다.

촉한(蜀漢)이 멸망한 뒤, 진수(陳壽)는 서진(西晋, 265~316)에서 사공(司空) 장화(張華, 232~300)에게 효렴(孝廉)으로 천거(薦擧)되어 다시 관직(官職)에 올라 저작랑(著作郞)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무제(武帝, 재위 265~290)에게 재능을 인정받아 익주(益州, 지금의 四川盆地와 漢中盆地 일대)의 역사인 <익부기구전(益部耆舊傳)>이나 촉한(蜀漢)의 승상(丞相) 제갈량(諸葛亮, 181~234)의 문집(文集)인 <제갈량집(諸葛亮集)>을 편찬하였다. 그리고 위(魏), 촉(蜀), 오(吳) 삼국(三國)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여 기전체(紀傳體)의 <삼국지(三國志)> 65편(篇)을 완성하였다. <삼국지>는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당대에 명문장가(名文章家)로 이름이 높던 하후담(夏侯湛, 243~291)은 진수의 <삼국지>를 보고 감탄하며 자신이 저술한 <위서(魏書)>를 부끄러워했다고 한다. 장화(張華)도 진(晋) 역사의 편찬도 진수에게 맡겨야 할 것이라며 감탄하였다. 결국 <삼국지>는 진수 개인이 편찬한 사서(史書)이지만, 무제(武帝)의 뒤를 이은 혜제(惠帝, 재위 290~306) 때에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정사(正史)로 인정되었다.

진수(陳壽)는 <삼국지(三國志)>에서 사료(史料)들을 매우 엄격하게 선별하여 다루었으며, 문장도 매우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특히 그는 삼국시대(三國時代)의 정치, 경제 등의 사실만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 과학과 기술 등과 관련된 인물들이나 주변의 국가나 민족들과 관련된 사실들도 폭넓게 기록하였다. 그리고 그는 위(魏)의 선양(禪讓)을 받아 세워진 서진(西晋)에서 벼슬을 했기 때문에 위(魏)를 정통(正統)으로 해서 <삼국지>를 서술하였다. 하지만 위(魏)를 정통으로 한 다른 사서(史書)들은 <위서(魏書)> 등의 제목 아래 촉한(蜀漢)과 오(吳)의 역사를 다루었지만, 진수는 제목도 <삼국지>로 하고, 본문도 '위서(魏書)', '촉서(蜀書)', '오서(吳書)'로 나누어 삼국(三國)을 상대적으로 대등하게 서술하였다.

진수(陳壽)는 치서시어사(治書侍御史)의 관직까지 올랐지만, 모친(母親)이 뤄양[洛陽]에서 죽자 유언(遺言)에 따라 그 곳에 장례를 치렀다가 불효자(不孝子)라는 비난을 받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고향(故鄕)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당시의 관습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 뒤에 다시 태자

중서자(太子中庶子)의 직위를 제수(除授) 받았지만, 명(命)을 따르지 못하고 죽었다.

<진서(晉書)>에는 진수(陳壽)가 <삼국지(三國志)>를 저술하면서 개인의 사사로운 원한(怨恨)으로 제갈량(諸葛亮)과 그의 아들인 제갈첨(諸葛瞻, 227~263)을 폄하했다거나, 위(魏)의 문인(文人)이었던 정의(丁儀, ?~220)의 후손들에게 그의 전기(傳記)를 쓰는 대신에 대가를 요구했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후대에는 촉한정통론(蜀漢正統論)이 강조되면서 촉한(蜀漢)의 신하였다가 서진(西晉)에서 다시 벼슬을 했으며 위(魏)를 정통으로 역사를 서술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진수(陳壽)는 제갈량(諸葛亮)의 정치가로서의 재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촉한(蜀漢)에 대해서는 용어의 사용 등에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정의(丁儀)도 위(魏) 문제(文帝, 220~226) 조비(曹丕)에게 주살(誅殺)되어 후손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지면서 <진서(晉書)>의 기록은 비판을 받고 있다.

《삼국지(三國志)》의 위서(魏書) 동이전

중국 서진(西晉)의 진수(陳壽)가 편찬한 30권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에 포함된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등 이른바 '동이(東夷)'에 관한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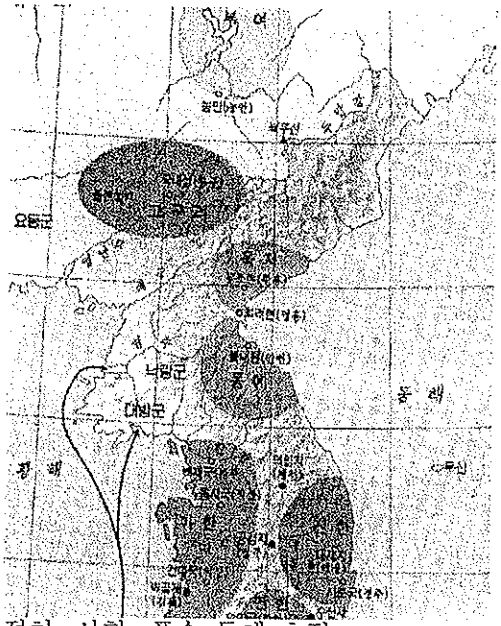
중국 서진(西晋, 265~316) 무제(武帝, 재위 265~290) 시기,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는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으로 되어 있다. <위서(魏書)> 30권(卷)의 '오환선비동이전(烏丸鮮卑東夷傳)'에는 중국 동북부의 유목 민족인 이른바 '동호(東胡)' 계통의 오환(烏丸), 선비(鮮卑)와 함께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옥저(沃沮), 읍루(挹婁), 예(濊),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왜(倭) 등에 관한 기록이 전해진다. <위서(魏書)>를 흔히 '위지(魏志)'라고도 하여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이라고도 부른다. 한반도 일대에 나타난 고대 국가들에 관한 가장 오랜 기록 가운데 하나이며, 각 국가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이나 풍속(風俗) 등에 관해 비교적 자세한 기록이 전해져 한반도의 고대사(古代史) 연구에 중요한 사료(史料)로 쓰이고 있다.

「魏志」30卷은 紀 4卷, 列傳 26卷으로 되어 있다. 紀는「武帝(曹操)紀」·「文帝(曹丕)紀」·「明帝(叡)紀」·「齊王(芳)·高貴鄕公(髦)·陳留王奐紀」로 되어 있으며, 列傳은「后妃列傳」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卷29의 列傳은 方伎로 되어 있으며, 卷30에는「烏丸·鮮卑·東夷傳」이 있다.

동이

실제로 東夷地域을 답사하여 그 견문을 충실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從軍者나 郡吏 등의 보고를 토대로 썼고, 또「東夷傳」에서 직접 보충한 기사는 후한 말에서 삼국 초에 이르는 기간의 동이와 중국과의 관계기사 뿐인데, 그 태반이 公孫氏와 관구검과 관련된 것이므로 그의「東夷傳」의 편찬태도는 매우 안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東夷傳」은 杜撰에 속하는 것이라고 평할 수 밖에 없음.

그러나 종래 천하의식, 정통의식과 같은 외면적, 관념적 의식 탈피. 동이의 사회, 문화, 지리,



정치, 사회, 풍속 등에 초점.

중국 동북부지방과 한국 ·일본에 분포한 종족을 중국인이 부르던 명칭.
은나라 때 인방(人方)이라는 이족(夷族) 집단이 있었고, 《죽서기년(竹書紀年)》을 비롯한 선진시대(先秦時代)의 문헌과 금석문에서 '동이'를 뜻하는 다양한 명칭이 발견된다. 여기에 표현된 이족과 동이족은 산둥성·장쑤성 북부 일대에 거주한 족속을 말한다.

동방을 '이'라 한다고 하였다. '이'라는 말은 산둥반도로부터 회사(淮泗) 유역에 분포된 민족 집단이 한족과 접촉하는 은(殷) 시대부터 역사에 등장한다. 그후 중국인들에게 여러 종족 개념과 방위개념 그리고 음양오행 사상이 발달함에 따라 서융(戎), 남만(蠻), 북적(狄) 등의 명칭이 나타났다. '동이'란 특정한 민족 개념이 아니라 방위개념이 첨가된 한족에 대한 상대적 개념의 동방 이민족의 범칭이다. 이 시기의 동이족에는 예(濊)·맥(貊)·한(韓) 계통의 우리 민족과 읍루와 왜족이 속하였다.

한편, 과거에 상고시대 중국 동북방에 거주한 동이족이 동쪽으로 이동하여, 한 줄기는 산둥 방면으로, 다른 한 줄기는 랴오둥과 한반도지역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견해가 있었다. 이러한 동이족 이동설에 근거하여 기자조선(箕子朝鮮)의 실체를, 동이족의 일파인 기자족이 고조선으로 이동하여 건국한 나라로 이해한 견해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이족 이동설은 고고학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많다.

진나라의 통일 이전에는 황하, 회하 유역을 중심으로 한 중국 동북부와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북방 몽골리안계 종족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진나라 통일 이후에는 산둥반도의 일부가 중국 역사에 흡수됨으로써, 발해만을 끼고 만주와 한반도에 분포한 한, 예맥 등을 동이로 지칭하였다. 즉 동이족의 범위가 상당히 동쪽으로 축소 이동한 것이다.

구복(九服)의 제도 언급
중국의 주(周)나라 주공 때 수도를 중심으로 그 바깥을 아홉으로 나눈 지방 행정 구역.
왕성을 중심으로 천리 사방을 왕기라 하고 그 바깥 오백리 사방을 후복, 또 그 바깥 오백리를 전복, 이렇게 하여 차례로 남복, 채복, 위복, 만복, 이복, 진복, 반복의 아홉임.

위의 부흥, 서역은 모두 오지 않으나, 구자, 우치, 강거, 오손, 소칙, 월씨, 선선, 차사의 무리가 조공.
공손연 아버지, 할아버지가 요동 소유. 동이와 절연. 이후 공손연 처치, 낙랑부, 대방부 편입. 이후 동이 굴복. 고구려가 배반, 군사를 보내어 토벌하면서 추격하니 오환과 골도를 넘어 옥저를 지나 숙신의 뜰을 밟고, 동쪽의 큰 바다에 이름.

238년 관구검의 고구려 침입. 공손씨가 위에게 멸망당하고 동천왕은 서안평 공격. 위와 충돌. 244년 관구검은 고구려 토벌.

中國失禮 求之四夷. 비록 이적(오랑캐)의 나라이나 조두의 형상이 있으니 중국이 예를 잃으면 사이에서 구한다는 것을 더욱 믿을 수 있다는 말. 화와 이의 구별은 민족적 구별이 아닌 개화와 미개화의 구별. 점차 한민족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민족적 구별로 변화.

부여

夫餘傳은 총 930字이며, 中國正史 중 夫餘에 관한 최초의 列傳으로 그 사료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 내용은 夫餘의 位置와 강역을 비롯하여 官制·衣食·儀禮·風俗·産物 등 夫餘의 生活習俗에 관한 상세한 상태기술과 玄菟郡·後漢·公孫氏 등 中國의 諸 勢力과의 관계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진 통일 이전 고조선과 더불어 중국에 알려짐. 1세기 초 후한대 왕호를 쓰는 연맹왕국으로 성장.

국민성: 8만 호에 백성들은 정착 생활을 궁실, 창고, 감옥 사람들은 신체가 굵고 크고, 성격이 강용(彊勇)하며, 신중하고 온후(謹厚)하여 침략하여 약탈하지 않는다는 국민성 설명.

국내정치; 나라에는 왕이 있어 모두 여섯 짐승의 이름을 딴 관리를 두었는데...궁선, 창고, 감옥 등의 국가시설 구비.
군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화살, 칼, 창을 병기로 하고 집집마다 갑옷과 병장기를 갖추고 있다.
전쟁; 군사를 일으킬 때 또한 하늘에 제사지내는데, 소를 죽여 발굽을 관찰해 길흉을 점쳤는데 발굽이 갈라지면 흉조로 여기고, 붙어 있으면 길조로 여긴다. 적이 쳐들어오면 제가들이 직접 싸우는데 하호는 양곡을 져 날라 이들을 먹인다.
외교, 전쟁; 한나라 말, 공손도(公孫度)가 요동에 나타나 외이(外夷)들을 위복(威服)시켰고 부여왕 위구태(尉仇台)는 요동군에 속하게 되었다. 고구려와 선비족이 강성해지고 부여가 두 오

랑캐 사이에 있게 되자 유주자사 관구검(毌丘儉)이 고구려를 토벌하고 현도태수 왕기(王頎)를 파견해 부여에 도착하자 간위거가 대가(大加)를 보내 교외에서 영접하고 군량을 공급했다.
시조설: 동명(東明)

고구려

구려는 성, 읍 등의 옛말.

위치: 요동에서 동쪽으로 천리 떨어진 곳에 있고, 남쪽으로 조선(朝鮮, 고조선), 예맥(濊貊), 동쪽으로 옥저(沃沮), 북쪽으로 부여와 접함.
국토, 인구; 사방 2천리에 호(戶)는 3만
경제; 좋은 밭이 없어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
국민성; 인성(人性)이 흉급(凶急)하여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치; 왕이 있는데 관직에는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 승, 사자, 조의, 선인이 있고, 높고 낮음에 각각의 등급이 있다. 동이족의 옛말에 이르기를 (자신들을) '부여의 별종'(夫餘別種)이라 하는데 언어와 여러 분야에서 부여와 같은 점이 많으나 그 성격과 의복은 다른 점이 있다.
부족; 다섯 부족으로 연노부(涓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
한, 고구려 관계
한나라 때 (한나라는) 고취(鼓吹, 궁중 연회의식때 쓰였던 악기), 기인(技人)들을 하사했고
항상 현도군에서 조복(朝服)과 의책(衣, 옷과 두건)을 받아갔다. 고구려령(현도군 고구려현의 현령)이 그 명적(名籍)을 주관했다. 후에 점차 교만하고 방자해져 다시 군(郡)으로 찾아오지 않아...
고구려인들은 기력이 세고 전쟁에 능해 옥저, 동예를 모두 복속시켰다. 또한 소수맥(小水貊)을 점령했다.

고구려 태조 때: 왕망(王莽)초기에 (왕망은) 고구려가 병(兵)을 일으켜 호(胡, 흉노)를 토벌하라고 했는데 (고구려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하게 핍박하여(彊迫) (사람들을) 파견했으나 모두 변경 밖으로 달아나 도적이 되었다. 왕망이 크게 기뻐하고 천하에 포고하여 고구려를 하구려(下句麗)라 고쳐 불렀다. 이때 후국(侯國)이 되었는데 한나라 광무제 8년(서기 32년)에 구려왕이 사자를 보내 조공하고 비로소 왕으로 칭해졌다.

상제(帝: 105-106), 안제(安帝: 106-125)연간에 구려왕 궁(宮)이 여러 번 요동을 침공하자 다시 현도에 속하게 했다. 요동태수 채풍, 현도태수 요광은 궁이 두 군(즉, 요동군, 현도군)에 해를 끼치므로 군대를 일으켜 토벌했다.

궁이 죽고 아들인 백고(伯固)가 즉위했다. 순제(順帝: 125-144), 환제(桓帝: 146-167) 연간에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신안(新安), 거향(居鄕)을 약탈하고 또 서안평(西安平,요동군 서안평현)을 공격해...

영제 건녕 2년(169년), 현도태수 경림이 고구려를 토벌하여 포로 수백 급을 참수하자 백고가 항복했고, 요동에 속하게 했다.

위궁(태조의 손자)은 힘이 세고 용맹하고 말을 잘 타고 사냥에서 활을 잘 쏘았다. 경초 2년(238년), 태위 사마왕(사마의)이 병력을 이끌고 공손연을 토벌할 때 궁은 주부, 대가가 지휘하는 수천 인을 보내 군을 도왔다. 정시 3년(242년), 궁이 서안평을 침공했고, 정시 5년(244)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격파당했다.

동옥저

부여(扶餘)계열 예맥족(濊貊族)의 부족사회. 오늘날 함흥에서 두만강 지역.
역사: 옥저는 임둔(臨屯)의 옛 땅인 낙랑동부도위(樂浪東部都尉) 소관인 부조현(夫租縣)의 후신으로 지금의 함흥 일대를 중심으로 하였는데, 30년 낙랑동부도위가 철폐되면서 56년경 고구려에 신속(臣屬)

정치: 왕이 없고 총 5,000에 이르는 호(戶)를 여러 읍락(邑落:共同體)으로 나누어 각 읍락에서 스스로 삼로(三老)라 일컫는 거수(渠帥)가 있어 하호(下戶)를 다스렸고 각 삼로 위에는 맹주(盟主)인 현후(縣侯)가 군림하였다.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시킨 다음 토착대인(土着大人:두목)을 두고 사자(使者:고구려 官職)로 삼아서 주관하게 하고, 본국의 대가(大加:部族長)로 하여금 조부(租賦)를 징수하는 총책임을 맡게 하였다. 따라서 옥저인들은 조세(租稅)와 초포(貂布:담비 가죽) ·어염(魚鹽), 기타 해산물을 멀리 운반하여 고구려에 공급하였다. 토지가 비옥하여 농경이 발달되어 오곡이 풍부하고 어염 등 해산물이 많아 생활조건이 좋았으나 고구려에 많이 수탈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전쟁: 관구검이 구려를 토벌할 때 구려왕 궁(동천왕을 말함)이 옥저로 달아났다. 군대를 진격시켜 공격해 옥저의 읍락을 모조리 파괴하였다.. 3천여 급을 목베거나 포로로 사로잡았다. 궁은 북옥저로 달아났다.

읍루

위치: 읍루(挹婁)[註002]는 부여(夫餘) 동북쪽 천여 리 되는 곳에 있고 대해(大海)에 닿아 있으며 남쪽으로는 북옥저(北沃沮)와 접하나 그 북쪽 끝은 알 수 없다.
인구: 사람들의 모습은 부여(夫餘)와 닮았으나 언어(言語)는 부여(夫餘), (고)구려(句麗)와 서로 같지 않다
정치: 대군장(大君長)은 없고 읍락(邑落)마다 각기 대인(大人)이 있다.
생활: 산림(山林) 사이에서 거주하며 늘 동굴 생활(穴居)을 한다. 대가(大家)는 (주거지의) 깊이가 아홉 사다리(九梯)에 달하며 많을수록 좋게 여긴다.[집해2] 그 땅의 기후는 추워서 부여(夫餘)보다 더 혹독하다.
역사: 한나라 이래로 부여(夫餘)에 신속(臣屬,신하로서 예속됨)하였는데, 부여가 조부(租賦,조세)를 무겁게 물리자 (위魏 문제) 황초(黃初) 연간(220-226년,고구려 山上王 24-30년)에 반란

을 일으켰다. 부여가 여러 번 쳤으나 그 사람들의 수가 비록 적어도 험한 산 속에 거주하는데다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활과 화살을 두려워하여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그 나라는 배를 타고 노략질을 잘 하므로 이웃나라들이 이를 우환으로 여겼다.
특징; 동이(東夷)에서는 마시고 먹을 때 대체로 모두 조두(俎豆)를 쓰나 오직 읍루(挹婁)만이 그렇지 않으며 법속(法俗)에 가장 강기(綱紀,기강)가 없다.

예, 동예

함흥지역

큰 정치적 세력 없이 각 읍락별로 나뉘어 자치생활. 한과 고구려는 내정은 읍락 내부에, 간접지배.

(고)구려(句麗)와 같은 종족이라 한다. 그들의 성정은 원각(愿慤,소박하고 성실함)하고 기욕(嗜欲,욕심)이 적고 염치(廉恥)가 있어 (남에게) 청하거나 구걸하지 않는다. 언어(言語)와 법속(法俗)은 대체로 (고)구려(句麗)와 같으나 의복(衣服)에는 다른 점이 있다.

단단대산령(單單大山領)의 서쪽은 낙랑(樂浪)(군郡)에 소속되고 (단단대산)령 동쪽의 7현(七縣)은 (동부)도위(都尉)가 주관하였고 모두 예(濊) 사람들을 백성(民)으로 삼았다. 뒤에 도위(都尉)를 폐지하고 그 거수(渠帥,우두머리,수령)를 봉해 후(侯)로 삼았으며 지금의 불내예(不耐濊)가 모두 그 종(種)이다. 한나라 말에는 다시 (고)구려(句麗)에 복속되었다.

항상 10월이 되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밤낮으로 음주가무(飮酒歌舞)하니 이를 무천(舞天)

길이 3장(丈)의 모(矛)를 만들어 때로 몇 명이 함께 이를 잡고 쓰기도 하며 보전(步戰,보병전투)에 능하다.

한, 삼한

위치; 한은 대방 남쪽에 있다. 동서는 바다에 이어져 있고, 남은 왜와 연접되어 있는데, 넓이는 4천리나 된다. 마한, 진한, 변한이 있는데, 진한은 옛날의 진국으로 마한은 그 서쪽에 있다.
인구; 사람들은 산과 바다에 흩어져 살았으므로 성곽이 없었다. 마한은 50여 국으로 큰 나라는 만여 가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 가이니 총 10여만 호였다.
변한은 또한 12국인데, 작은 별읍들이 있고 각각 우두머리가 있어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험측, 번예, 살해, 읍차가 차례로 있었다. 변한과 진한을 합치면 24국이고, 큰 나라는 4천-5천가, 작은 나라는 6백-7백 가로 총 4-5만 호이다.

상고시대(上古時代)에 한반도 남부에 자리잡고 있던 3부족사회(三部族社會).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을 말한다. 본래 이 지역에는 목지국(目支國)의 군장(君長:보통 辰王이라고 하며 마한 시대에는 臣智라 하였다)의 세력하에 진국(辰國)이라는 부락연맹체(部落聯盟體)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진국의 동북계(東北界) 지역에는 일찍부터 북쪽 나라에서 남하 이주한 사람들로 형성된 집단사회가 있었다.

고조선 마지막 임금 준왕(準王)이 위만(衛滿)에게 나라를 빼앗겨 남으로 망명하여 정주한 곳도 이 고장이다. 이 이류민(移流民)의 사회는 준왕 이래로 스스로 한(韓)이라 부르며 목지국의 우두머리인 진왕(辰王)의 보호와 지배하에 있었으므로 낙랑(樂浪)의 한인(漢人)들은 이를 진한(辰韓)이라 불렀다. 그 뒤 한(韓)의 칭호는 점점 확대되어 진왕을 맹주로 받드는 모든 소국(小國)에 대해서도 한(韓)의 칭호를 붙이게 되었다.

이리하여 후한(後漢) 말 대방군(帶方郡)이 새로 설치될 무렵에는 진한과 아울러 마한(馬韓)·변한(弁韓)이라는 명칭이 나타나게 되었다. 마한의 마(馬)는 본래 족명(族名)인 개마(蓋馬)에서 온 것이라 하며, 변한의 변(弁)은 그들이 사용한 관모(冠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위지(魏志)》 및 《후한서(後漢書)》 등은 진한은 동쪽에 있고 마한은 서쪽에 있다고 그 위치를 적고 있다. 그러므로 마한은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진한은 지금의 경상남북도, 변한은 낙동강 유역에서 전라남도의 동부에 이르는 지방으로 보는 것이다.

삼한 지역 내에 분포된 소국(부족국가)들의 수와 그 위치 및 그들의 최고 맹주인 진왕과의 관계를 보면 《위지》를 근거로 하여 엮은 《후한서》에는 마한에 54국, 진한에 12국, 변한에 12국이 있다고 하였으나 그 숫자에 대해서는 고증이 구구하여 아직 결론이 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위지》 중 <마한조(馬韓條)>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50여 개국은 진한 ·마한 두 지역의 국읍(國邑)을 한데 묶어 열거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들 50여 국은 목지국의 진왕을 최고 맹주로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치적으로 하나의 큰 연합체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국(國)은 한 부족의 거주지역을 뜻하는 말로, 그 영역과 인구가 낙랑(樂浪) ·대방(帶方) 등 한 군현(郡縣)의 1현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대국(大國:목지국과 같은 것)이 1만여 가(家), 소국이 수천 가(家)라 하고 이들 50여 국의 총 호수가 10여 만 호라 하였는데, 이 호(戶)란 혈연적인 가부장제(家父長制)의 공동체였다.

진한

역사;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늙은이가 세상에 전하기를 스스로 "옛날에 진역을 피하여 도망온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 마한이 그 동쪽 경계의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말했다.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 삼한(三韓) 중의 하나.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4세기경에 지금의 대구·경주 지역에 분포한 12개의 소국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맹주(盟主)인 경주의 사로국(斯盧國)을 위시하여 기저국(己柢國)·불사국(不斯國)·근기국(勤耆國)·난미리미동국(難彌理彌凍國)·염해국(冉奚國)·군미국(軍彌國)·여담국(如湛國)·호로국

(戶路國)·주선국(州鮮國)·마연국(馬延國)·우유국(優由國)이 있다.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따르면 진한 12개의 소국은 큰 나라는 4,000~5,000가(家), 작은 나라는 600~700가 정도였다고 한다.

진한의 형성 주체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삼국지》에서는 진한을 옛 진국(辰國)이라 하고 《후한서》에서는 진국이 진한뿐만 아니라 삼한 전체를 포괄한다고 한다. 다른 기록은 《삼국지》 진한조에 중국 진(秦)나라의 유민들이 노역을 피해 한(韓)나라로 이주해와서, 마한의 동쪽 땅을 분할받아 진한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또한,《삼국사기》에는 위만조선계 유민들이 이주해 진한을 형성하였다는 설도 있다.

이들 소국들은 3세기 후반에 신라의 기본세력으로 편제되어갔으며, 그 중 일부는 가야(伽倻)의 소국(小國)으로 발전한 듯하다.

변한

역사; 처음 6국이 있었는데 작게 나뉘어져 12국이 되었다. 변진 역시 12국이다. 또 여러 작은 별읍이 있다. 각각 거수가 있어 大者는 臣智라 이르고, 그 다음은 험측이 있고, 다음은 번예 다음은 살해 다음은 읍차가 있다.

한반도 중부 이남 지역에 분포한 삼한(三韓) 중의 하나.
변진(弁辰)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4세기경까지 지금의 김해 ·마산 지역에 분포한 정치 집단을 가리킨다. 진한과 변한의 구분은 종족적 ·지역적인 구분에 의해서 대비되지만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변진은 진한과 잡거하며 언어 ·법속 ·의식주가 같고 다만 귀신의 섬김이 다르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진한과 변한은 전체적으로 같은 문화기반을 가진 정치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삼국지》에 변진은 12개의 소국 이외에 독립된 거수(渠帥)가 있는 여러 소별읍(小別邑)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변진은 경상도 지역에 분포한 여러 정치 집단 가운데 진한연맹체에 속하지 않은 세력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뒤에 가야연맹체를 구성하였다. 변한은 유명한 철산지로서 중국 군현과 왜에 철을 수출하였고 왜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문신(文身)의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